

##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유네스코 UIS 교육통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진은(兪鎭銀)\*\*

### 논문 요약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는 1963년 이래로 초·중등교육, 사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 직원들의 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을 망라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UIS 교육통계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앞으로의 교육 통계조사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승인통계의 시기별 변천사를 알아보고, 총 73종의 교육 승인 통계 중 59건을 기본통계, 초중등교육, 사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UIS 교육통계의 범주화, 분류체계, 방법론적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UIS 교육통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이 간과되는 반면 사교육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 통계에 대한 방법론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 73건의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는 최초의 연구로, UIS 교육통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의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주요어 : 승인통계, 교육통계, 교육 승인통계, UIS 교육통계, 국제표준교육분류

\* 이 논문은 한국통계발전사(in press) 중 교육통계 부분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제1대학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1항),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3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4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6항).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관련 기본 권리 및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며 이행되는지 조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통계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통계 목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통하여 교육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교육현황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시행·평가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교육통계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며 학생, 교원, 학교 현황과 더불어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 직원 등의 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을 망라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공식적으로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승인된 교육통계의 승인 연도가 1963년이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는 지정통계와 승인통계로 나뉜다.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이며, 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승인(협의)된 통계다. 즉,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느냐(지정통계) 아니면 승인하느냐(승인통계)의 차이가 있다. 지정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또는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로, 응답자의 응답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교육통계 중 지정통계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며, 통계작성지정기관 관련 지정요건(제18조),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조), 지정의 취소 관련 조항(제20조)이 통계법에 명시되어서 철저히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현재 총 73건의 교육 관련 국가승인통계가 있다<sup>1)</sup>. 과반세기가 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통계가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련 국가승인통계의 시기별(또는 정부별) 변천사를 알아보고, 교육 승인통계를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UIS 통계를 통하여 국제 동향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통계를 평가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우리 교육통계의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15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

1) 이는 통계청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고용통계로 분류되는 이공계인력육성실태조사와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화통계로 분류되는 국민의 기초문해력조사를 포함한 수치다.

다. 또한, UIS 통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의 국가 승인통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연구자의 교육 관련 통계 자료 활용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II.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sup>2)</sup>

### 1. 시기별 교육통계

#### 1) 일제강점기~1960년대

일제 강점기였던 1908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에서 교육 분야 통계조사를 총괄하였는데,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보통학교/소학교,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고등보통학교/중학교/실업학교/사범학교,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전문학교/대학/고등사범학교가 작성 대상이었다. 전 학교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계 항목으로, 상황(국적별 직원 수, 학년별 및 성별 학생 수, 입학자·중퇴자·사망자 수 등), 자산(부지 및 부속지, 운동장 및 기타 건물, 토지 건물 및 물품 가액) 등이 있었다. 이 외에 관공립 및 일본인 설립 도서관 관련 통계, 교과용 및 교원 참고 도서의 발매수량 및 반포에 대한 통계, 일본인 및 조선인 학생 신체검사 통계, 공사립 및 일본인 설립 유치원 관련 통계, 일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령 아동 통계(취학/불취학/취학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수)가 있었다. 중·고등 교육기관이었던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수 변동에 대한 통계 또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서당도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서당 수, 직원·학생 수, 그리고 경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광복 이후 교육통계는 학교 기관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학교 및 용도별 교실 수, 성별 교원 수, 성별 학생 수 등이 있었다. 통계 수가 총 221 건이었던 일제 강점기와 비교 시, 광복 이후 1961년까지의 교육통계는 총 78건에 불과하였다. 조사 대상과 항목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2) 1960년대~1980년대

교육통계조사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통계로, 최초 작성연도는 1962년이며 1963년 승인되었다. 각급 학교 현황을 조사하던 교육통계조사는 2009년 교육기본통계로 명칭이 변경

2) 우리나라 통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b)을 참고하였다.

되면서 중지되었다. 교육기본통계는 전국의 유치중등,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을 다루는 통계로, 보고통계이자 지정통계로 2015년 현재 지속되고 있다. 다음 승인통계인 한국교육기관현황은 1979년 1회한으로 승인되었다. 이 통계는 일반통계이며 전수 조사통계로, 전문대학 포함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적, 이수학점, 교수의 승진연한, 양성계획, 제도상 신규교수 임용, 시간강사, 개설 강좌 등을 다루었다. 다음 해인 1980년에 역시 1회한으로 한국인의 교육관조사를 실시하여, 교사·학생·학부모를 확률표집하여 기본인적사항, 교육관 등을 우편조사하였다.

### 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1990년 중반까지와 달리, 1990년 후반부터 다수의 교육통계가 승인되었는데, 정부별로 어떤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몽똥그려 10년 단위로 분석하기보다는 정부별로 교육통계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정부별로 교육통계 변천사를 알아보았다.

1980년 한국인의 교육관조사 이후로 17년간 승인통계가 없다가, 김영삼 정부 기간(1993.2~1998.2) 중 유일한 교육 승인통계인 사교육실태 및 국민의식조사가 1997년에 1회한으로 실시되었다. 사교육실태 및 국민의식조사는 김영삼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비전 실현을 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꾀하였다. 그 중 위성교육방송(현재의 EBS) 실시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이는 이후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 기간(1998.2~2003.2)에는 총 19개의 교육통계가 승인되었으나, 이는 16개 시도의 교육통계를 포함한 숫자이므로 사실상 크게 네 가지 교육통계가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하며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과 2002년에 한국의 인재교육지표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이 1년 주기로 각각 승인된 것을 볼 때, 김대중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다른 특징으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 더불어 특기적성을 중시하는 2002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라 다양한 입시 전형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조기유학 및 해외이민자도 급증하였다. 이는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 관련 통계 급증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2003.2~2008.2)에서는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으로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전환하였다가 변별력 문제가 야기되면서 논술 시험 및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교육 승인통계로,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조사, 교육여론조사, 학업성취도평가, 한국교육중단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05~2006년 승인되었다.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총 41건의 교육통계가 승인되었으며, 집권 5년차인 2007년은 무려 28건의 교육통계가 최초 승인된 해다. 이 중 10건은 1년 주기로 작성되는 통계였고, 나머지 18건은 1회한으로 작성되는 통계였다. 특히 평생교육(성인교육) 관련 통계가 10개나 최초 승인되었다. 평생교육의 경우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평생학습사회 비전 실현이라는 가치가 시차를 두고 교육 승인통계 숫자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교육 억제의 일환으로 EBS 수능방송이 수능 출제에서 일정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수능의 기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같은 해인 2007년에 사교육 관련 통계 역시 4건이나 승인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통계가 승인된 것이 특징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한두 건의 교육통계가 승인되는 정도였는데, 특히 2006년에 9개, 2007년에 28개의 통계가 최초 승인되었다. 즉, 전체 교육 관련 승인통계의 절반이 넘는 통계가 2006년과 2007년의 2년간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이는 교육통계에만 국한하는 현상이 아니라 통계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852건의 통계가 승인되었으며(통계청, 2012), 특히 마지막 2년인 2006년과 2007년에만 각각 285건과 419건의 통계가 승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수준의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 또는 기관 내부 활용 목적으로 실시되던 통계까지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통계 관리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 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2998.2~2013.2)에서는 2008년 117건, 2009년 73건의 승인통계를 대거 승인취소하였다(통계청, 2012). 이는 통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을 꾀하기 위함이었다(주간동아, 2008, 8, 12). 교육통계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승인되었던 37건 중 약 30%인 12건이 2008년과 2009년에 중지되었다. 37건 중 절반을 차지하는 18건은 1회한 통계였고, 20%가 채 못 되는 7건의 통계가 계속통계로 현재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 6건의 통계가 승인되었다. 2008년 1회한으로 대학생 사교육비 지출실태 조사와 서울시 교육실태 및 수요조사가 승인되었다. 또한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 5년 주기로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가 2008년 승인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최초 승인된 통계가 없다가, 2011년 3년 주기인 박사인력활동조사와 반기 주기인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조사가 승인되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현재) 동안 승인된 통계는 2건이다. 2013년과 2014년에 1년 주기인 사립대학재정통계와 국가영재교육통계가 각각 승인되었다. 사립대학재정통계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등교육정책 수립 등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영재교육통계는 전국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과학고를 전수조사하는 조사통계로,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담당하고 있다.

## 6) 요약

정리하자면, 196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73종의 교육관련 승인통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관련 승인통계는 일정한 숫자로 승인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숫자가 들쭉날쭉한 편이었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상당히 많은 수의 통계가 승인되었던 점, 그리고 1회한 통계와 중지통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 등이 특징이었다. 최초 승인 연도로 정리한 연대별 승인 교육통계 수는 <표 1>을 참고하면 된다. 1980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승인 교육통계가 전무하다가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1건, 김대중 정부에서 19건, 노무현 정부에서 41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6건과 2건이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최초 승인 연도로 정리한 연대별 승인 교육통계 수

연대	정부	최초 승인 연도	승인 통계 수	합계
1960년 ~1980년대		1963	2	4
		1979	1	
		1980	1	
1990년대	김영삼 정부 (93.2~98.2)	1997	1	1
	김대중 정부 (98.2~03.2)	1999	16	19
2001		1		
2002		2		
2003		1		
2004		1		
2000년대	노무현 정부 (03.2~08.2)	2005	2	41
		2006	9	
		2007	28	
		2008	4	
		2011	2	
2010년대	이명박 정부 (08.2~13.2)	2013	1	6
		2014	1	
		2014	1	
	박근혜 정부 (13.2~현재)	2013	1	2
		2014	1	
총			73	73

## 2. 교육통계 범주 및 주요 교육통계 발전과정

앞서 시기별 교육관련 승인통계의 양적 추세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총 73건의 교육관련 승인통계 중 59건을 기본통계, 초·중등교육, 사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성인교육)의 다섯 개 범주로 범주화하여 질적인 측면에서의 승인 추세를 알아보았다(<표 2>; 범주화하기 어려운 14건은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헌법 제31조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본통계’ 범주는 헌법 제31조 1항부터 6항을 모두 근거로 한다. ‘초·중등교육’ 범주는 헌법 제31조 2항, 3항, ‘고등교육’ 범주는 4항, ‘평생교육’ 범주는 5항, 6항과 각각 관련이 있다. 즉, 우리 교육통계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관련 기본 권리와 의무 이행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통계 선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정통계를 택하였다. 2015년 현재 계속통계일 것, 승인년도가 너무 근래가 아닐 것 등을 그 다음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 분야의 지정통계는 교육기본통계와 사교육비조사의 단 두 건이다. 그 결과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종단조사, 사교육비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 평생교육통계를 각 범주를 대표하는 통계로 정하였다. 이중 박사인력활동조사만 작성 주기가 3년이며, 다른 주요통계들은 모두 반기 또는 연간 작성된다.

<표 2> 교육통계 범주와 승인통계명

상위 범주	하위범주	승인통계명	갯수
기본 통계	교육 기본통계	교육기본통계 <sup>a0.5</sup> , 교육통계조사 <sup>b1</sup>	18
	교육통계	교육통계 <sup>b1</sup>	
초·중등 교육	학생·학업 관련 통계	한국교육종단조사 <sup>a2</sup> , 학업성취도평가 <sup>a1</sup> ,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 및 적응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체육에술교과의 생활 기록부 기록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12
	학교·교원 관련 통계	학교교육수준 및 실태조사 <sup>b1</sup> , 학교정보화인프라수준 <sup>b1</sup>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영재교육과 특수교육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실태조사, 영재교육 만족도 조사, 국가영재교육통계 <sup>a1</sup> , 특수교육실태조사 <sup>a3</sup> , 특수교육통계 보고 <sup>b1</sup> , 특수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요자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사교육		사교육실태 및 국민의식조사, 사교육의식조사 <sup>a1</sup> , 사교육실태조사 <sup>b1</sup> , 사교육비조사 <sup>a1</sup> ,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sup>b1</sup>	5
고등 교육	대입선발, 대입준비	대입선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의견조사, 대입준비에 있어서의 학교 의존도 조사	10
	대학 현황	한국교육기관현황, 학술정보 DB구축 및 이용현황 <sup>a1</sup> , 사립대학재정 <sup>a1</sup>	
	대학 생활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대학생의견 및 만족도 조사, 일반대학 교육과 만족도 조사, 대학생 사교육비 지출 실태조사, 학자금대출현황 <sup>b0.5</sup>	
	고등인적자원	국내신규 박사학위취득자조사 <sup>a0.5</sup> , 박사인력활동조사 <sup>a3</sup> ,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고용) <sup>a3</sup>	

상위 범주	하위범주	승인통계명	갯수
평생 교육	평생교육 전반	평생교육통계 <sup>a1</sup>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sup>b1</sup> , 평생교육 민관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학습·노동·복지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학습자 인식조사	14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sup>a1</sup> ,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및 평생학습 실태조사	
	학점은행제와 방송통신고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학위 수여자 운영현황 <sup>b1</sup> ,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학습자 및 실무자 의식조사,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성인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만족도 및 요구조사, 성인문해교육 초등학력인증 방안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국민의 기초문해력조사(문화) <sup>a5</sup> , 성인대상 중학교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실태 및 의견조사	

note 1: 각 범주를 대표하는 통계명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note 2: 각 통계명의 위첨자는 계속통계(a) 또는 중지통계(b)와 실시 주기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위첨자 a2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계속통계를, 위첨자 b1은 연간 실시되었던 중지통계를 뜻한다. 위첨자가 없는 통계는 1회한 통계다.

## 1) 교육기본통계

교육기본통계는 보고통계이자 지정통계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 50호)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과 그 직속기관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을 망라하는 통계로, 학교, 교원, 학급, 학생, 사무직원 등이 작성 범위가 된다. 크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다루는 유초중등 교육통계와, 대학과 대학원 등을 다루는 고등교육통계로 나뉜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을 전수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 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교육기본통계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를 기초로 『교육통계연보』 등의 각종 자료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교육기본통계는 1963년 승인 이후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실시하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KEDI가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일반승인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되었다.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이 조사 시행기관이며, 사업 주관과 지원은 각각 KEDI와 교육부가 된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와 기타학교의 경우 바로 시도교육청으로 조사 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시도교육청은 모든 통계자료를 최종 수합하여 역시 온라인으로 KEDI에 제출한다. 2013년에 조사 항목 변경이 있었는데,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인학생 현황, 연령별 입학자 및 졸업자 수가 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사설학원 관련 정보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현황, 교육대학 교원현황 등은 조사 항목에서 삭제되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와 고등교육통계는 각각 연간과 반기로 현재 인터넷 조



사를 통하여 작성된다. 고등교육통계의 경우 교육부, KED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의 유관기관에서 중복 조사되고 있던 각종 조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KEDI에서 고등교육통계 통합조사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공은배 외, 2011).

## 2)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는 학교 교육 관련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정책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역시 KEDI가 작성기관이다. 다른 교육 승인통계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한국교육종단조사는 같은 학생들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패널조사라는 특징이 있으며, 패널조사의 경우 표집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교육종단조사는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3-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전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4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군집표집으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로부터 무선으로 학생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그 후 사후 층화를 통해 학교 표본의 경우 시도, 학교 설립유형(국·공립/사립), 학교 성별(공학, 남학교, 여학교) 등이 모집단 구성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학생 표본의 경우 학생 성별, 학업성적 분포, 가정 환경 분포가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비슷하도록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를 거부한 학교와 학생의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체 표본을 추가표집하여 최종 연구에 동의한 150개 학교와 6,908명의 학생 표본을 확정하였다. 이는 체육중학교와 분교를 제외한 전국 중학생 중 약 1%에 해당되는 숫자다. 한국교육종단조사는 무응답에 의한 대체(imputation)를 적용하지 않으며, 1차 조사 이후 표본 탈락자 또한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만 26세까지의 기간, 그리고 만 30세가 되는 시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사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기준연도인 2005년 중학교 1학년인 학생에서 시작하여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인 2011년까지의 7년을 1단계로 하여 인지·비인지적 성취,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고등학교 진학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1단계에서는 중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우편조사를, 학교 이탈자의 경우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해당 교사 전원, 교장 또한 같이 조사하였다. 학교장/교사/학생/학부모용 질문지 4종, 국어/영어/수학 성취도 검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4종, 담임교사의 학생평가지 1종, 학교조사지 1종을 해당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이 작성하였다. 2008년부터는 이 학생들이 각기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으므로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검사와 학교장/교사 질문지, 학교조사지를 제외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통계청 통계품질진단이 실시되었고, 2009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학습자특성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에는 학습자특성조사를 제외하고 목표

의식조사지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 졸업시점인 2011년부터 만 26세가 되는 2019년까지의 9년으로, 이 단계에서는 2년마다 표집된 학생의 인지·비인지적 성취, 대학 진학 및 대학 생활, 교육 내용 및 수준, 진로/직업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표집된 학생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취업자 및 구직자, 진학준비자, 입대자, 기타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하여 우편조사가 불가하므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면접조사 또는 전화/인터넷조사로 조사 방법이 변경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 30세가 되는 2023년에 1회 측정하여 직업, 향후 직업 포부, 교육 경험, 삶의 수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공은배 외, 2011).

### 3) 사교육비조사

사교육 관련 통계는 모두 5건으로, 1997년 1건(사교육실태 및 국민의식조사), 2006년~2007년 4건(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사교육실태조사, 사교육의식조사, 사교육비조사)이 승인되었다. 이 중 사교육실태조사와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는 각각 2007년과 2010년에 중지되었다. 2014년까지 사교육의식조사와 사교육비조사만 계속통계로 실시되었으나, 사교육의식조사 또한 2015년부터 사교육비조사로 통합되며 중지될 예정이다. 즉, 사교육실태조사, 사교육의식조사 등의 사교육 관련 통계가 사교육비조사로 통합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사교육 관련 통계 연혁을 살펴 보겠다. 먼저 2006년에 KEDI를 작성 기관으로 하는 사교육실태조사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인하여 2006년 9월과 10월에 열린 청와대 주관 회의에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로 2007년 5월에 통계청과 KEDI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인 2007년 6월과 9월에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사교육의식조사가 각각 승인되었다. 따라서 2006년 승인된 사교육실태조사는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사교육의식조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2007년 중지되었다. 2007년 승인되었던 사교육비실태조사는 2008년 10월에 사교육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통계청, 2015a), 2007년부터 매년 작성되어 온 사교육의식조사 또한 2015년부터 사교육비조사로 통합될 예정이다. 즉, 사교육 관련 통계 중 사교육비조사 통계가 가장 공신력 있으며 다른 사교육 통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라 할 수 있다.

2008년까지는 권역별(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결과를 발표하였고, 2009년부터 시도별 조사로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총액 및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본 또한 이전의 34,000명에서 44,000명으로 증가시켰다. 2010년 이후 조사방법 선진화와 응답자 비밀보장 강화로 인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부터는 전면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충북·충남에서 세종시를 분리하여 17개 시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지정통계인 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최초 승인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교육비조사 항목으로는 방과후 학교 교육비, EBS 교재비 및 어학연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비,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사교육비, 학생과 부모 인적 사항 및 가구 소득, 진학상담(컨설팅) 비용 등이 있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과 그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4개 학교급(초/중/일반고/특성화고)과 17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하는 확률비례계통표집을 이용하여 1,000여개 학교의 44,000여명을 표집하여 조사한다. 이 통계는 교육부를 통해 조사대상 학교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조사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로 지방통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조사표를 배부·회수한다. 사교육비조사의 특징으로 CASI, CAPI, CATI 등의 인터넷 조사가 전면 도입된 것, 마이크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 그리고 이용자그룹협의체<sup>3)</sup> 운영을 통하여 통계 개선이 논의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통계청, 2013b).

#### 4) 박사인력활동조사

우리나라의 박사인력에 대한 통계는 신규 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신규 박사학위취득자조사, 그리고 이공계 인력에 초점을 맞춘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있었다. 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가, 후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작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 박사인력을 다루는 포괄적인 조사가 없다는 제한점으로 인하여 박사인력활동조사 통계가 2011년 최초 승인되어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박사인력활동조사 통계는 OECD/Eurostat의 다국가 통계프로젝트인 Careers of Doctorate Holders(CDH)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공식 CDH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조사목적 중 하나다. CDH는 2007년부터 시작된 각 국가의 국내 거주 박사학위자에 대한 표준화 통계 프로젝트로,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26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직접 통계생산의 전단계인 패널토의에 참여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박사인력활동조사는 약 4,000명의 국내 박사학위소지자를 모집단으로 한다. 먼저 16개 시도로 1차 층화하고(2013년 기준), 지역에 따른 박사학위 소지자 수에 비례하도록 표집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을 이용한다. 이 때 지역별 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이다. 박사인력활동조사는 방문

3) 이용자그룹협의체는 관계 부처,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통계 개발 및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 조사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은 표집된 박사학위자의 인적 특성, 박사학위 교육, 고용상태, 국제이동성, 연구직 경력, 비정규직 특성 등을 조사하며, 이는 고급인력 양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5) 평생교육통계

다수의 평생교육 관련 통계가 주로 2006년과 2007년에 승인되었는데, 그 배경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2000년에 국가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학계 등에서 평생교육통계를 조사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3년에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5년에는 평생교육통계 조사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구체화하였고, 마침내 2006년에 평생교육통계 시범조사가 실시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평생교육통계가 최초 승인되어 2007년부터 KEDI가 매년 작성하고 있다.

평생교육통계의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는 평생교육법상 교육부 인가 및 교육청에 신고된 평생교육 시설 3,200여개, 평생교육 전담 지정운영기관(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평생학습관) 400여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00여개이며, 이를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전수조사한다. 조사 항목으로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교·강사·사무직원 현황, 대학부설추가조사,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등이 있다. 평생교육통계는 맞춤형 품질개선컨설팅을 받아 '조사포괄 범위 확대'를 통하여 품질개선을 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통계청, 2013b). 그 결과 2011년부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현황 등을 추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 Ⅲ. 국제 동향: 유네스코의 UIS 통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시기별로 고찰한 후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고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통계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UNESCO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UNESCO 교육통계의 주된 목적이 국제 비교이기는 하나, 전 세계 교육통계를 개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 평가 기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 교육통계와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특수성이 그 나라의 교육통계에 반영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UNESCO의 교육통계인

UIS 통계를 범주화하고, UIS 통계의 ISCED 분류체계와 방법론적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 1. UNESCO의 UIS 통계 개관

국가정책 수립 시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UNESCO 산하 기관인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가 1999년 창립되었다. UIS의 주된 역할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며, UIS는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준 또한 마련한다.

각 UNESCO 회원국은 매년 UIS, UOE, WEI 중 하나를 작성하여 UIS에 보내게 된다. 먼저, UIS 설문은 UNESCO 회원국<sup>4)</sup>용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정회원국으로 UIS 설문을 작성한다. 다음 UOE 설문은 OECD 또는 Eurostat 소속 국가 용으로, UNESCO-UIS, OECD, Eurostat의 세 기관이 공동으로 1993년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다. UOE 설문은 UIS 설문보다 더 자세한 교육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WEI(World Education Indicators) 프로그램은 중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 용으로, 정책 수립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WEI는 UOE 설문에 중소득국가용 문항들이 추가된 것이므로 UOE 설문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UOE 설문 문항에 대하여는 UOE 설문 참여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 또한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루과이 등이 WEI에 참여하고 있다.

연간 세 번(1월, 5월, 10월) 개정되는 UNESCO의 UIS 자료센터(UIS Data Centre)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유일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UIS 자료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참여, 진급, 완수, 인적/경제적 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세계은행 교육통계(World Bank EdStats)와 같은 다른 여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UN, OECD, 각국 정부기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연구 기관, 대학 등에서 널리 이용된다. 이를테면 최근 발간된 『OECD 교육지표』에서는 각 나라의 중등 및 고등교육의 과정별 자료에 대한 세부 정보뿐만 아니라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및 임금 격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등을 제시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 때 UNESCO의 UIS 데이터베이스와 ISCED 분류체계가 이용된다. UIS 자료는 UIS가 창립된 1999년 자료부터 찾을 수 있으며, 등록, 재수강자, 교사 등에 대한 자료는 1970년 자료부터 가능하다. 참고로, UIS 자료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4) 2015년 현재 195개 회원국과 9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 2. UIS 통계 범주

UIS는 UNESCO 회원국들에게 14개 범주에 대한 교육통계 자료를 매년 제시한다. 학교 밖 아동(out-of-school children; 1번 범주), 입학(entry; 2번), 참여(participation; 3번), 진급(progression; 4번), 완수(completion; 5번), 문해(literacy; 6번),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7번), 대학(원) 교육에서의 국제 학생 이동(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tertiary education; 8번),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9번), 경제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10번), 학교 자원과 교수 조건(school resources and teaching conditions; 11번)<sup>5)</sup>, 성인 교육(adult education; 12번), 인구(population; 13번), 체계(system; 14번)가 바로 그 14개 범주들이다.<sup>6)</sup>

이는 크게 교육 전반, 성인교육, 국제학생 이동, 학교 밖 아동, 인적·경제적 자원, 학령인구와 교육체계의 5개 상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 전반 범주는 입학(2번), 참여(3번), 진급(4번), 완수(5번), 교육이수(7번)로 구성된다. 이 범주는 초·중고·대학(원)까지의 전반적인 통계를 망라한다. 성인교육 범주는 문해(6번)와 성인교육(12번)으로, 문해율/문맹율,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만을 대상으로 성인을 위한 문해·초·중등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국제 학생 이동 범주는 대학·대학원 교육에서 국제학생 이동(8번)으로, 국내외 유학생에 대하여 대륙별, 지역별, 국가별 학생 수와 비율 등을 다룬다. 인적·경제적 자원 범주는 인적 자원(9번), 경제적 자원(10번), 학교 자원과 교수학습 조건(11번)으로, 교육 수준별 교원, 학생-교사 비율,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백분율, 공립교육기관 총 지출 대비 당기지출 백분율, 학생당 정부 지출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학령 인구와 교육체계 범주는 인구(13번)와 체계(14번)으로 구성되며, 교육 수준별 공식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 수, 교육수준별 교육 기간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정리하자면, UIS는 국가별 신입생과 재학생의 분포와 등록률, 유급율, 진학률, 완수/졸업율, 교육 기간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년별 또는 학교급별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한다. 또한 취학 연령과 입학연령, 교육수준별 교육 기간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UIS 통계의 특징으로, 문해율, 연령대별 문맹율 등을 보고하며, 교육 수준별 교원 수와 백분율,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백분율과 비율, 교육 수준별 학생 1인당 정부 지출 등에 대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통계를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등학교 연령대의 아동 수와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UIS 통계의 또 다른 특징이다. 국제 자료를 다루는 UIS 통계는 출신 지역별 대학(원) 수준에서의 국내외 유학생 수와 유학 지역별 국외 이동율/유학생 비율 등도 제시한다.

5) 학교 자원과 교수 조건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에만, 성인 교육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6) 각 범주의 숫자(예: 1번 범주, 2번 범주 등)는 제시된 순서대로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 3. UIS 통계의 특징

#### 1) ISCED 분류체계

UNESCO UIS 통계에서 주목해야할만한 특징으로, UNESCO가 세계 회원국의 교육체제를 비교하기 위하여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표준교육분류)라는 분류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SCED는 고용, 직업, 교육 분야를 망라하는 국제표준교육분류체계로, 교육 분야의 경우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모두 포괄한다는 특징이 있다. UNESCO의 UIS는 ISCED의 유지, 수정, 개정 등을 책임진다. ISCED는 1976년 UNESCO에 의하여 처음 개발된 후, 1997년 개정(ISCED 1997)을 거쳐 2011년 가을에 재개정(ISCED 2011)되었다. ISCED 2011은 ISCED 1997의 7개 수준을 9개로 더 상세하게 구분하였다(<표 3> 참고). 만 0~3세 미만 영아 교육이 새로 추가되었고, 박사과정 제외 대학(원) 과정이 세분화된 점이 ISCED 1997과의 차이점이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2). ISCED 2011의 다른 특징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업 전 범주(pre-vocational category)가 빠진 대신 자격요건이 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이수에 대하여도 분류체계(coding schemes)를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 ISCED 1997과 ISCED 2011 비교

ISCED 1997	ISCED 2011
	0: 영아 발달 교육 (010; 만 0~3세 미만 영아)
0: 유아교육(만 3세 이상 아동)	유아교육(020;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1: 초등교육	1: 초등교육
2: 전기 중등교육	2: 전기 중등교육
3: 후기 중등교육	3: 후기 중등교육
4: 중등후 비고등교육	4: 중등후 비고등교육
	5: 단기 고등교육
5: 고등교육 첫 번째 단계	6: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
	7: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
6: 고등교육 두 번째 단계	8: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

ISCED 2011의 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ISCED-Programmes; 이하 ISCED-P)와 교육이수 분류체계(ISCED-Attainment; 이하 ISCED-A)는 각각 대분류(first digit), 중분류(second digit), 소분류(third digit)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수준을 뜻한다. 대분류는 0부터 8까지의 교육 수준을 나타낸다. 즉, 0은 영유아 교육, 1은 초등교육, 2는 전기 중등교육, 3은 후기 중등교육,

4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5는 단기 고등교육, 6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학위, 7은 석사 학위 또는 동등 학위, 8은 박사 학위 또는 동등 학위를 지칭하며, 이는 ISCED-P와 ISCED-A가 동일하다. 중분류는 0에서 9까지 10개 범주가 있다. 주로 쓰이는 범주는 4 또는 5로, 4는 일반/학술(general/academic) 교육, 5는 직업/전문(vocational/professional) 교육을 뜻하며, ISCED-P와 ISCED-A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소분류의 경우 ISCED-P가 0부터 9까지 매우 자세하게 교육프로그램 수준을 분류한 것에 비하여 ISCED-A는 0부터 4까지만 의미가 있다. ISCED-A의 소분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소분류 0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해당되며 분류의 의미만 있다. 소분류 1은 부분적인 수준 완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소분류 2는 부분적으로만 수준을 완료하였고 다음 교육이수로 넘어가기는 부족한 것을 뜻한다. 소분류 3은 수준을 완료했으나 다음 교육이수로 넘어가기는 부족한 것을, 소분류 4는 수준을 완료했으며 다음 교육이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교육지표 산출 방법론 관련 유의 사항<sup>7)</sup>

### (1) 통계값 간 차이

UIS 통계값은 국가통계 연감 자료값과 다를 수 있다. 이는 자료 또는 지표 산출에 이용된 방법론이 달라서일 수 있고 또는 교육시스템 분류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교등록율의 예를 들어 보겠다. 국가통계 연감과 UIS 통계는 같은 기본 학교등록 자료를 이용한다. 그러나 비율 산출 시 분모로 쓰이는 인구추정치(population estimates)는 방법론에 따라 달리 산출될 수 있으므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며 세계 각국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UIS는 UNPD(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UN 인구 부서)의 통계치를 이용한다. UNPD 통계치는 성별·연령별로 제시되며, 2년마다 수정된다.

또한 교육통계는 국가 수준의 교육시스템 편성 차이로 다를 수 있다. 국제 비교 시 UIS는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은 초등교육(1학년~6학년)과 중학교 교육(7학년~9학년)을 나누어 비교한다.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9년인 국가의 경우 9년에 대한 통계값을 제공하게 되는데, UIS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9년으로 뭉뚱그린 통계값을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으로 나누다 보면 통계값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2) 추정치 수정

교육시스템에 대한 통계치, 경제 정보 등에 대한 UIS 자료는 UIS가 UNPD,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받으면서 수정된다. UNPD는 2년마다 새로운 모집단 예측값과 수정된 전년

7)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4) 자료를 정리하였다.



도 추정치를 발표하며, UIS는 이 자료를 통계치로 이용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많은 UIS 교육 지표 산출 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 변화에 따른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UIS는 새롭게 수정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자료를 개정한다. 특히 고인구 국가의 경우 수정된 추정치는 국가, 지역, 세계 수준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out-of-school children) 숫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슷하게, 교육재정과 같은 경제 자료 기반 지표는 반년마다 수정되는 세계은행 자료와 연동되어 수정된다.

### (3) UIS 결측치 처리

각국의 교육부 또는 통계청과 같은 공식적인 통계기관이 UIS, UOE, 또는 WEI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해의 어느 국가의 어떤 지표가 결측(missing)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평균(regional averages) 계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UIS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단, UIS는 대체값을 추정하여 결측치를 처리할 뿐이며 이러한 추정된 대체값들은 보고서에 실리지는 않는다.

UIS 결측 처리 방법의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해의 사립 초등학교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결측이라고 하자. 이 때 사립 초등학교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 대 학생 비율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공립학교 교사 대 학생 비율의 변화율을 사립학교 수치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 UIS는 이러한 결측자료 처리 시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imputation)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선형 내삽(linear interpolation)도 시행한다. 전혀 자료가 없다면 그 지표의 집단 평균을 대체값으로 이용하기도 하나, 2012년 기준 이렇게 전혀 자료가 없는 국가는 6개도 안 되는 적은 수다.

### (4) 자료 수집과 제시 범위

UIS 교육통계는 전체, 성별, 지역별, 소득별<sup>8)</sup> 평균을 제공하나, 지역별 평균을 종교, 언어와 같은 다른 요인과 연계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UIS는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제공하나, 이를테면 지역별 특수학생 자료와 같은 더 세부적인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UIS 교육통계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을 주로 하므로 성인교육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남미 국가에 대하여 지역 설문을 실시하여 성인교육에 대한 국가 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기초문해 기능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초·중등학교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에게 학교를 졸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8) 지역별 평균의 경우 UNESCO, UNICEF 등의 지역 분류를, 소득별 평균의 경우 세계은행 분류를 따른다.

## IV.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에서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시기별로 고찰하고,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다음으로 전 세계 교육통계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UNESCO의 UIS 통계를 범주화하고, UIS 통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UIS 통계의 범주와 분류체계(ISCED)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각각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승인연도를 기준으로 시기별 승인통계의 양적·질적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 1. UIS 통계 범주를 기준으로 한 평가

전반적으로 UIS 통계 범주가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이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IS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공통 범주는 입학, 학생등록, 완수, 교육 수준, 인적 자원, 성인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 대학·대학원 교육에서 국제 학생 이동, 경제적 자원(GDP 대비 교육비 지출 등)과 같은 범주는 우리나라 승인통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먼저, UIS 통계는 ‘학교 밖 아동’이라는 범주를 상위 범주로 하여 초등학교/중등학교 각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 수와 비율을 통계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이는 지금껏 우리나라 학교 밖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의 비율 증가가 이슈가 될 만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아동에 대한 통계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UIS 통계는 대학·대학원 교육에서 국제 학생 이동을 비중 있게 다루며 국내유학생과 국외유학생에 대하여 유학 대륙별/지역별 국제 유학생 수와 국가별 학생 수, 국제 유학생의 순수 이동, 국내 이동률, 유학 지역별 국외 이동률과 국외 유학생률 등을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에서 연도별 초·중등 출국 유학생 수와 대학의 국외한 국인/국내외국인 유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나, UIS 통계에서처럼 유학 대륙별/지역별 국제 유학생 수, 국가별 학생 수, 국제 유학생의 순수 이동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학지역별 국제 유학생 수와 같은 정보가 승인통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KEDI와 같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승인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의 질이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UIS 통계가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백분율, 공립 교육 기관 총 지출 대비 당기지출 백분율, 학생당 정부 지출 등을 제시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우리 교육 승인통계는 찾기 힘들다. 흥미로운 것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50대 주요 지표에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통계청, 2013a). 50대 주요 지표 중 다른 교육 관련 지표인 유치원·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의 취학을 현황,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중등 유학생 수는 교육 승인통계에서 다루고 있다.

## 2. UI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 평가

UIS 통계의 경우 전 세계 각국의 교육통계 자료 제시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주된 목적이므로, ISCED라는 국제표준교육분류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UIS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유네스코는 1976년 ISCED를 처음 개발한 후 1997년과 2011년에 두 번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 교육영역에 대하여 ISCED 2011 기준과 부합하도록 KSCED(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한국표준교육분류)를 2014년에 제시하였다. KSCED는 ISCED 2011과 큰 틀에서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사소한 차이점이 있다. ISCED가 교육프로그램을 0부터 8단계로 분류한 반면, KSCED는 '9: 기타'라는 대분류를 추가하여 별도 정의가 없거나 미상인 프로그램까지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ISCED가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6, 7, 8 단계에 대하여 '4: 일반/학술'과 '5: 직업/전문' 중분류만 있는 반면, KSCED는 '6: 불특정'이라는 중분류를 포함하였다. ISCED에는 있고 KSCED에 없는 분류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 (또는 중등 후 비학위 과정)인 4단계에서 '4: 과정 이수, 상위단계 진학 가능'이라는 소분류다.

ISCED 2011 (또는 KSCED)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할 때, 교육 승인통계의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ISCED 2011은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발달교육과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을 제일 처음 수준으로 분류한다. 이 수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통계로는 보육실태조사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가 있다<sup>9)</sup>. 그러나 이들 통계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통계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 실태에 관한 항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KEDI에서 조사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에 유아 관련 통계가 일부 포함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기관에 대한 통계일 뿐, 유아 특성이나 발달 과정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공은배 외, 2011).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승인통계는 찾기 힘들며, 보육 실태 관련 영유아 통계는 복지통계로 분류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육 범주를 생성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성인교육은 ISCED 2011의 수준 0(영아발달교육)부터 수준 8(박사학위 수준)까지의 아홉 단계의 교육 수준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ISCED는 따로 성인교육 범주를 만들지 않았다. UIS 통계가 원칙적으로 정규교육

9) 2004년 승인된 보육실태조사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승인된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정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사교육 관련 통계는 ISCED 2011 분류로 범주화할 수 없었다. 이 또한 사교육이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ISCED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에서 성인교육과 사교육 통계가 특징적이었다. 또한 영유아 기관에 대한 통계는 교육통계 일부와 복지통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그 이외 교육 관련 영유아 통계는 승인통계에서 간과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KEDI가 ISCED 1997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체제분류체계 연구를 한 바 있다(박중효 외, 2009). 이후 유네스코의 최신 기준인 ISCED 2011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2012년 KEDI에서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강영혜 외, 2012), 2014년 통계청에서 KSCED(한국표준교육분류)를 재정비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네스코의 최신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발 빠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분류체계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한 후 각 분류에 부합되는 승인통계가 아직 수집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3. 시기별 승인통계의 양적·질적 발전 추세에 대한 평가

앞서 UIS 통계의 범주와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우리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최초의 연구인 본 연구는 이에 덧붙여 우리 승인통계의 특징을 이용하여 교육 승인통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UIS 통계와 달리, 우리 승인통계는 승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통계인지 아니면 중지통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기별 승인통계 수와 승인통계 주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의 양적·질적 발전 추세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육 승인통계가 양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감소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에 승인통계의 양적 팽창이 있었으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가 특정 시기 다수 승인되기도 하는 등 정부별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승인통계의 주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초기 교육통계는 학교교육 기관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루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평생교육(성인교육), 사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대입선발과 준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평생교육과 사교육 관련 통계가 다수 승인되어, 이러한 주제들이 사회적 관심사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2010년대 승인통계는 고등인적자원에 대한 통계가 다수로, 교육통계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사회적 관심사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73종의 교육관련 승인통계 중 대다수가 1회만이거나 중지통계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통계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따

라서 장기적인 추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의 통계 관리 변동으로 인해 2006년과 2007년에 37건이나 되는 교육통계들이 승인되고 후에 중지된 점을 감안하여 나머지 36건을 분석할 때에도 과반수가 중지통계(18건, 50%)였고, 1회한 통계는 5건(14%)이었으며, 계속통계는 13건(36%)에 불과하였다. 미국 교육통계의 경우 학교 등록에 대한 자료는 1840년부터 있으며, 교육이수에 대한 자료는 1940년부터 포함되어 있다(U. S. Census Bureau, 2014). 유네스코 UIS 통계의 경우에도 학교 등록, 재수강자, 교사 관련 통계는 1970년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UIS 통계와 미국 교육통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4.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

UIS 통계의 범주와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 빠르게 노력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통계들을 발굴하며 지속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기본통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범주에 속하는 통계들은 UIS 통계 범주와 분류체계에 부합하며, 사교육과 평생교육 범주에 속하는 통계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 통계들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교육비조사 통계가 지정통계인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사교육 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국민의 실제 요구를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하여 교육현황 개선을 꾀하려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승인 통계에 영유아 교육 관련 통계만 추가 된다면 ISCED의 대분류를 모두 다루게 된다.

몇몇 교육통계의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반영한 것도 고무적이다. 통계청은 경기, 산업, 사회, 교육 등의 12개 분야별로 이용자그룹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개발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을 논의하는데(통계청, 2013a; 통계청, 2013b), 바로 사교육비조사 통계가 이용자그룹협의체의 도움을 받은 통계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2012년에 세 번에 걸쳐 교육부 담당자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그룹협의체가 사교육비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공표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통계청, 2013a). 사교육비조사의 경우 인터넷 조사를 이용하여 시행되는 점도 다른 통계들과의 차별점이다. 평생교육통계의 경우 통계청의 맞춤형 품질개선컨설팅을 받았으며, 그 결과 조사포괄범위확대를 통하여 품질개선을 꾀하였다(통계청, 2013b).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교육통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또는 기법을 통하여 통계조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UIS 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영유아교육 관련 통계나 학교 밖 아동, 국제 학생 이동,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등에 대한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문서화에 대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UIS 홈페이지에서 전반적인 통계조사 방법론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며 Q & A 페이지까지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반면, 우리 교육 승인통계의 경우 특히 방법론(예: 교육지표 산출 방법론, 추정치 수정, 결측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한 문서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통계와 UIS 통계의 방법론 측면에서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다. UIS 통계에서와 같이 통계의 방법론적 특징들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 승인통계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가 특정 시기 다수 승인되었다가 중지되기도 하는 등, 지속성의 관점에서는 개선 사항이 눈에 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구축되어 온 UIS 교육통계와 비교 시,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1회만으로 시행되는 통계가 많았으며, 중지통계 또한 상당히 많아서 미국이나 UNESCO 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나라 교육통계 역사가 반세기를 넘은 지금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통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혜, 문성빈, 우선영, 구민선, 조흥선(2012). **국제 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 기초한 한국의 교육체제분류 개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2-16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 김상호, 박재민, 이기준, 이미라, 오지연, 전민선(2011).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3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박사인력 활동조사 지침서**.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종효, 김홍주, 변기용, 우선영, 김지혜(2009). **국제표준에 기초한 한국의 교육체제분류 개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주간동아(2008, 8, 12). **통계청, 정부승인통계 대수술**. 주간동아 648호, 18-19.
- 통계청(2012).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의안번호 2012-06호.
- 통계청(2013a). **2012 국가통계백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3b). **살아있는 통계, 함께하는 통계청**.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5a). **사교육비조사**.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survey/pedu/pedu\\_sm/1/index.static](http://kostat.go.kr/survey/pedu/pedu_sm/1/index.static)
- 통계청(2015b). **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
- 통계청(in press). **한국통계발전사**. 대전: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13).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13-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 서비스: 해외통계 관련 사이트**.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post/1014605?itemCode=06&menuId=m\\_02\\_06\\_03](http://kess.kedi.re.kr/post/1014605?itemCode=06&menuId=m_02_06_03)
-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15). *Education indicato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Retrieved from <http://nces.ed.gov/pubs/eiip/eiip1s01.asp>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2). *ISCED 2011: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sced-2011-en.pdf>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4). *ISCED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3 (ISCED-F 2013)*. Retrieved from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sced-fields-of-education-training-2013.pdf>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4).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www.uis.unesco.org/Education/Pages/FAQ.aspx>
- U. S. Census Bureau. (2014). *The 2012 statistical abstract*.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

gov/compendia/statab/cats/ education.html

\* 논문접수 2015년 5월 6일 / 1차 심사 2015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19일

\* 유진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B. A.) 후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M. S. in Education), 통계학 석사(M. S. in Statistics) 취득 후 측정·평가·연구방법론으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 학기에 끝내는 양적연구방법과 통계분석', 'Multiple Imputation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이 있다.

\* E-mail: jeyoo@knue.ac.kr



## Abstract

## A Study on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Compared with the UIS Education Statistics\*

Yoo, Jin Eun\*\*

Since 196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have been conducting facts and/or perceptions surveys to student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mong others, in all possibl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planning and practices of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were grouped in categories, and compared with the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statistic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methods, statistics categorization,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 total of 7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were examined, and 59 of them were categorized as the five groups: Basic, Elementary and Secondary, Private Tutoring,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lacking, and the Private Tutoring category stands out, compared with UIS statistics. Documentation efforts on detailed methodology need to be furthered. This study is the first one on the 73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and discussed suggestions to improve the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Key words: Korea approved statistics, Educational statistics, Korea approved statistics of education,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statistics,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

\* This study is based on the Education Statistics part of 한국통계발전사(in press).

\*\*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